



“ 평화로운 인생길의 은혜 ”

■ 빌 4:4-7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삶과 죽음, 자신의 삶의 자세와 삶의 목표에 대한 자기 설계를 밝힙니다. ‘형제들 아...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0-21) 바울은 삶과 죽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3-14) 바울은 자신의 삶을 아직도 꾀대를 향해 달려가는 미완의 존재, 도상의 존재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치열한 인생을 살면서도 결코 버리거나 망각하지 말아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화를 제시합니다.

1. 하나님께 맡긴 인생
 바울은 로마의 옥중생활을 이어가면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평화롭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7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고, 9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며,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세상의 방법을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에서 많은 평화조약들이 쉽게 파기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전쟁,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중동전쟁 등 전쟁의 참화로 고통당하고 절망했습니다. 인간의 오만이 빛은 비극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요 14:27)고 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 평화,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세계의 평화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2. 기쁨과 관용의 삶
 바울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즉 기쁨, 관용, 기도의 삶입니다. 기쁘게 산다는 것은 삶을 윤희하듯 산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과 회망을 지니고 적극적으로 사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1:18) 고난이 오던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던지 십자가 구원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5절)고 했습니다. 관용이란 넓은 마음으로 폭넓게 수용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억압과 배신을 경험했지만, 관용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롬 15:7) 바울은 용서하고 관용하는 기쁨을 누려보았기 때문에 관용의 가치를 중요하게 제시합니다. 기쁨과 관용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3. 기도하는 믿음을 더해야
 기뻐하고 관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기반하는 것이라면 참되고 영원한 평화는 기도에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결심이 아무리 견고해도 세상의 형편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염려할 일도 자꾸만 생겨납니다. 다향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 51:10)라고 간구했습니다. 깊은 기도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의 헛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고, 정욕에 사로잡힌 우리 욕망을 버릴 수 있는 힘도 얻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안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않는 평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둘째 주, 2021 사명자대회 여섯째 주일입니다. 교회 예배시설 방역에 만전을 기하였기에, 원하시는 시간에 주일예배와 교회학교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찬양예배 시에는 할렐루야찬양대에서 준비한 추수감사 찬양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정상 교회 대면예배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실시간 온라인중계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고 그동안 코로나로 행하지 못했던 성찬식을 가집니다. 다음 주일 1,2,3부 예배 참석을 위해 본당에 들어오실 때 성찬위원들이 로비에서 드리는 개별 성찬키트를 받으신 후 담임목사님의 집례에 따라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번 추수감사헌금은 올 한 해는 물론 교회 설립 30주년과 오랜 분쟁 끝에 교회 회복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 드리고, 그 모아진 감사헌금은 서울교회에 주신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축하는 의미로 전액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되므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녁 찬양예배 시에는 이미 예고한대로 담임목사님 위임예식과 그동안 모든 훈련과정을 마친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있을 이 모든 행사를 위해서도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1114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p>우리의 비전 (vision)</p>	<p>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p>	<p>서울교회QR코드</p> 
	<p>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p>	
	<p>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p>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오늘날 예수님의 초상화는 12세기 무렵 화가들이 상상으로 그린 것이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상상의 산물로 예수님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계시된 예수님을 영감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14가지로 묘사했다. 그 중 네 가지만 살펴보고 그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자.

사도가 본 예수의 눈은 불꽃같다.
 불타는 눈으로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연못가의 절름발이, 자기 옷을 몰래 만진 병고침 받고 싶어 하는 여인, 세 번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도 불꽃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은 보고 계셨다. 사도의 고통도, 우리의 모든 경험을 보고 계시고, 잘못도 살피신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입의 말과 행실을 보고 계신다. 주님의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우시고 심판하신다.

주님의 입으로 날선 겸이 나왔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물소리같이 들려졌다. 경죄하는 음성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신다. 그 음성은 과거 시상이 아닌 현재형이다. 우리 죄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말씀하신다.

주님의 오른손에 일곱별과 일곱 촛대를 붙잡고 계신다.
 일곱별은 주의 종ियो, 일곱 촛대는 주님의 교회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교회의 지도자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예외 없이 붙잡고 계신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셨으니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 좌절할 이유가 없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도가 죽은 자같이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의 손이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 일곱별을 붙잡고 계신 그 손으로 우리도 만지고 계신다.

주님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계셨다.
 긴 옷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입는 옷이다. 이 삼중직은 기름 부음을 받은 즉 메시아 예수 우리 주님의 직분이다. 오늘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 되시어 대제사장으로 대속의 기도를 해 주시고, 왕 중 왕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긴 옷을 입고 계신 주님 발 앞에 사도는 죽은 자 같이 엎드려 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신 주님은 사람의 아들같이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는 죽었었노라 그러나 지금은 살아 있는 자라’ 요한과 함께 계심으로 그의 안전이 보장되고 네가 본 것을 받아써서 교회에 전하라 하셨다. 우리도 인자같이 우리에게 오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아니라 우리가 믿고 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고 그의 증인이 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동수 목사	임상헌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안용곤 목사	노문환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96: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67(잠언 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438(495)...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빌 4:4-7...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평화로운 인생길의 은혜”...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428(488)...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추수감사찬양예배-

오후 5시	·인도: 안용곤 목사, 설교 :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00:4-5 ... 인 도 자
찬 송	498(275) ... 다 함 께
기 도	최형열 장로
성 경	행 9:1-9 ... 인 도 자
성경암송대회 시상식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왜 나를 박해하느냐(2)” ...	설 교 자
특별찬양	할렐루야찬양대
* 찬 송	505(268) ...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조원영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고선옥 권사 II	위성남 권사
부: 성 경	행 9:10-25 인 도 자
.....	찬 양 대
찬 양	설 교 자
설 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전재홍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minster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모임

1. 모세선교회 총회 / 14일(주) 2부 예배 후 202호
2. 리브가전도회 총회 / 14일(주) 오후 3시30분 501호

알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2. 추수감사절 감사주일 / 다음 주일(21일)은 추수감사절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와 새 출발의 계기가 되는 주일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동안 참여 못했던 성도들에게 독려하시어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주일예배 시간에는 추수감사헌금을 드립니다)
13. 손달익 담임목사 위임식 및 15대 집사, 14대 권사 임직식
일시 : 21일 오후 찬양예배 시
장소 : 본당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고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1)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2)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수요일부 예배 녹화 방송
- (3)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정부의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교회 대면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412명	588명	2,000명	393명	2,115명

개인주의의 위기

지식 사회일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다. 개인이 없는 전체나 단체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집단보다 중요시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 나라도 결국은 개인적인 것이 될 것이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손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이다.

이처럼 개인이 중요하지만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천박한 상태에 빠지게 되며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강조케 됨으로 사마니즘과 같은 비기독교적 상태에 머물게 된다. 개인주의가 강조됨으로 공동체 의식도 무너지게 되고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도 저해를 받게 된다.

한국교회가 몸 되신 교회 개념을 충분히 인식하여 개인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개인주의나 개교회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시다.

에너지 절 약 :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